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사회적 기술과 행동문제

Soci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
The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성미영(Miyoung Sung)¹⁾

ABSTRACT

Social skills and behavior problems of 90 4- and 5-year-old children were analyzed by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sadness, anger, and fear). The instrument for measurement of social skills (cooperation, self-control, assertion, and responsibility) was the Preschool Level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Suh, Mee-Ock, 2004). Measures of behavior problems included internalizing(anxiety, immaturity, withdrawal, physical symptoms) and externalizing(hyperactivity, aggression) problems. Results showed that girls were higher in negative emotionality(sadness) than boys, and 5-year-olds were higher in social skills than 4-year-olds. Children with lower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were higher in social skills and lower in behavior problems than children with higher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Key Words : 부정적 정서성(negative emotionality),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I. 서 론

유아의 정서발달은 인지발달이나 사회성발달과 같은 다른 발달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아의 정서적 능력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주로 정서이해나 표현능력, 정서지식, 그리고 정서규제와 같은 세부적인 정서능력에 주어

져서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Brown & Dunn, 1996; Denham, 1986; Denham, McKinley, Couchoud, & Holt, 1990). 아동의 정서발달 중 정서지식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이강이 · 성미영, 2003)에 의하면, 아동의 정서지식 수준에 따라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정서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대인간 갈등

¹⁾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Miyoung Su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16-1 Jungneung-dong, Sungbuk-gu, Seoul 136-704, Korea
E-mail : minie@skuniv.ac.kr

상황에서 그 문제를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처럼 아동의 정서지식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서지식과 같이 정서적 상황 판단에 요구되는 사회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상태에 해당하는 정서성 역시 아동의 또래관계나 사회적 적응 등에서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 어린 유아의 경우 처음 직면하는 낯선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은 유아들마다 개인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처음 경험하는 낯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뒷걸음질 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유아도 있을 수 있고, 낯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유아도 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유아의 기질과 관련된 부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기질의 정서적 측면에 해당하는 정서성은 낯선 상황에 대한 개별 유아의 대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들어 유아의 정서성에 관한 연구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유아의 정서성 발달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유아의 정서성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의 정서성과 행동역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박성연, 1998; 박성은·박성연, 2001;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유아의 정서성이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권연희·박경자, 2003; 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Fabes, Eisenberg, Jones, Smith, Guthrie, Poulin, Shepard, & Friedman, 1999; Murphy & Eisenberg, 1997; Rothbart, Ahadi, & Hershey, 1994), 그리고 유아의 정서성이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성미영, 2006; Ackerman, Izard, Schoff, Youngstrom, & Kogos, 1999;

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abes, Shepard, Reiser, Murphy, Losoya, & Guthrie, 2001)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유아의 정서성은 크게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으로 구분되는데 기쁨의 경우는 긍정적 정서성에 해당하며,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의 정서는 부정적 정서성에 포함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을 포괄적으로 취급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거나, 부정적 정서성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성미영, 2006)에 의하면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긍정적 정서성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적 관계를, 그리고 부정적 정서성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내면화 행동문제 정도는 낮았으며,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점수도 높았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본 Rothbart와 동료들(1994)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공격성이나 죄의식 등과 정적인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Eisenberg와 동료들(1993)은 미취학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적 기술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부정적 정서성이 사회적 기술과 부적 관련을 보이며, 특히 남아의 경우에는 또래지위와 부적 관련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경험은 일상적 또래관계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Fabes et al., 1999).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긍정적 정서성의 경우에

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높고, 공격적 행동의 발생 가능성은 낮았다(Arsenio, Cooperman, & Lover, 2000). 이처럼 아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성이 사회적 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정서성 발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적 정서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또래관계 특성이나 대인관계 적응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을 중심으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행동문제에 나타나는 차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는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적 기술, 또는 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을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사용이나 행동문제의 차이 여부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만 4세 및 5세의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부정적 정서성 발달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의 차이가 유아의 사회적 기술, 그리고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가져오는 차이를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사회적 기술, 행동문제의 성차와 연령차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서 성차와 연령차가 나타난 결과(권세은·이순형, 2002; 성미영, 2006; 심희옥, 1998)도 제시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김영옥·윤경선, 2000)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사회적 기술, 행동문제에서의 성차와 연령차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성별, 연령 및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행동문제는 성별, 연령 및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만 4세 및 5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사회적 기술 및 행동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소재 4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90명의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부정적 정서성, 사회적 기술 및 행동문제를 어머니를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중류층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료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 구성은 만 4세 유아 58명과 5세 유아 32명이었고, 성별 구성은 남아가 53명, 여아가 37명이었다.

2. 연구도구

1) 부정적 정서성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 Ahadi와 Hershey(1994)가 개발한 아동행동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s : CBQ)를 사용하였다. CBQ의 하위영역 중 부정적 정서성 관련 문항을 연구대상 연령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부정적 정서성 검

사도구를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발달 영역은 분노/좌절, 두려움, 슬픔의 정서 상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슬픔(예, 하던 일이 잘 안 풀리면 몹시 실망한다), 두려움(예,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 분노(예,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 화를 낸다)가 부정적 정서성에 해당한다. 각각의 영역은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검사는 유아의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성 검사 질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측정되었다. 부정적 정서성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적 정서성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78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은 평균값(50.73)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은 높은 집단, 그리고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2) 사회적 기술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과 Elliot(1990)의 사회적 기술 평가 체계(Social Skills Rating System)의 한국판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한 서미옥(2004)의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를 사용하였다. K-SSRS는 주장성 11문항(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자기통제 7문항(예, 다른 가족원의 물건을 사용하기 이전에 허락을 구한다), 협력성 6문항(예,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돕는다), 책임성 8문항(예, 다른 사람의 불합리한 요구를 공손하게 거절한다)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K-SSRS는 빈도의 측면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 검사는 유아의 어머니가 사회적 기술 검사 질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측정되었다. 사회적 기술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체 사회적 기술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5로 나타났다.

3) 행동문제

연구대상 유아의 행동문제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유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CBCL을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연구결과(한미현, 유안진, 1995)를 토대로 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 아동에게 부적합한 문항들을 제외하고, 대상 연령이 미취학 유아라는 점을 고려하여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총 36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행동문제 검사도구의 문항들은 크게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내면화 행동문제에는 불안(예, 걱정이 많고 무서움을 탄다), 미성숙(예, 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위축(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신체증상(예, 피곤해한다)의 하위영역이 포함되며, 외현화 행동문제에는 과잉(예, 차분히 앉아 있지 못하고 부산하다) 및 공격행동(예, 사람들을 때리거나 친다)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0점(그렇지 않다), 1점(그런 편이다), 2점(매우 그렇다)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행동문제 검사는 유아의 어머니가 행동문제 검사 질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측정되었다. 행동문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체 행동문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통계처리

연구대상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사회적 기술 및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2005년 12월 셋째주 및 넷째 주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어린이집을 방문한 후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유아의 어머니가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질문지 배부 1주일 뒤 조사원이 다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총 1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90부를 회수함으로써 회수율은 75%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프로그램에 의해 통계처리되었으며, 통계기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t-검증, 이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이 이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점수는 50.73점이었으며, 남아는 49.90점, 여아는 53.08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시된 <표 2>와 같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중 슬픔의 경우에만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슬픔의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여아의 점수(M=17.30, SD=4.61)가 남아의 점수(M=14.92, SD=5.0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333, $p<.05$). 반면, 전체 부정적 정서성과 두려움, 분노의 경우에는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연령	슬픔	두려움	분노	전체	
	M(SD)	M(SD)	M(SD)	M(SD)	
남아	4세	14.54(5.08)	17.95(5.38)	16.86(6.44)	49.35(12.00)
	5세	15.81(4.96)	16.81(6.89)	15.88(4.62)	48.50(12.32)
	전체	14.92(5.03)	17.60(5.84)	16.57(5.92)	49.90(11.99)
여아	4세	16.43(4.53)	17.71(5.99)	18.38(6.36)	52.52(13.43)
	5세	18.44(4.59)	19.25(7.01)	16.13(5.82)	53.81(13.53)
	전체	17.30(4.61)	18.83(6.40)	17.41(6.17)	53.08(13.30)
전체	4세	15.22(4.93)	17.86(5.56)	17.41(6.41)	50.50(12.52)
	5세	17.13(4.88)	18.03(6.95)	16.00(5.17)	51.16(13.01)
	전체	15.90(4.97)	17.92(6.05)	16.91(6.00)	50.73(12.63)

2. 성별, 연령 및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기술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연령 및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기술 평균 점수는 36.82점이었으며, 남아는 36.91점, 여아는 36.70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및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시된 <표 4>에 의하면 연령과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회적 기술의 경우 유아의 연령과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사회적 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만 5세 유아의 사회적 기술 점수(M=38.94, SD=7.80)가 만 4세 유아의 점수(M=35.66, SD=8.14)보다 더 높았으며(F=4.817, $p<.05$),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유아(M=39.69, SD=8.24)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M=34.31, SD=7.23)에 비해 사회적 기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9.172, $p<.01$).

다음으로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 중 주장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 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이원변량분석

구 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슬 품	성 별	102.018	1	102.018	4.333*
	연 령	53.917	1	53.917	2.290
	성별×연령	2.720	1	2.720	.116
	오 차	2024.707	86	23.543	
부정적 정서성	성 별	24.372	1	24.372	.653
	연 령	.811	1	.811	.022
	성별×연령	35.685	1	35.685	.956
	오 차	3211.615	86	37.344	
분 노	성 별	15.623	1	15.623	.515
	연 령	52.770	1	52.770	.232
	성별×연령	8.029	1	8.029	.640
	오 차	3136.777	86	36.474	
전 체	성 별	360.611	1	360.611	2.244
	연 령	.958	1	.958	.006
	성별×연령	22.939	1	22.939	.143
	오 차	13818.108	86	160.676	

* $p < .05$

나타나서 만 5세 유아의 주장성 점수(M=13.81, SD=3.51)가 만 4세 유아의 주장성 점수(M=12.50, SD=3.80) 보다 더 높았다(F=5.498, $p < .05$). 또한,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유아

(M=11.05, SD=2.29; M=5.74, SD=2.21; M=9.24, SD=2.35)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M=9.48, SD=2.69; M=4.71, SD=2.25; M=7.77, SD=2.45)에 비해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122, $p < .01$; F=5.994, $p < .05$; F=6.390, $p < .05$).

〈표 3〉 성별, 연령 및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기술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연령	부정적 정서성	사회적 기술				
			주장성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전체
			M(SD)	M(SD)	M(SD)	M(SD)	M(SD)
	4세	낮음	13.78(3.42)	10.72(2.40)	5.17(2.57)	9.44(1.98)	39.11(8.04)
		높음	12.00(3.92)	8.89(2.40)	4.53(2.34)	7.63(2.63)	33.05(7.76)
		전체	12.86(3.74)	9.78(2.54)	4.84(2.44)	8.51(2.45)	36.00(8.37)
남아	5세	낮음	13.00(3.27)	11.60(2.22)	6.60(1.51)	8.50(2.27)	39.70(7.35)
		높음	15.83(3.19)	8.67(4.23)	4.00(3.10)	9.33(3.98)	37.83(8.98)
		전체	14.06(3.43)	10.50(3.33)	5.63(2.50)	8.81(2.93)	39.00(7.75)
전체		낮음	13.50(3.33)	11.04(2.33)	5.68(2.33)	9.11(2.04)	39.32(7.67)
		높음	12.92(4.05)	8.84(2.84)	4.40(2.48)	8.04(3.01)	34.20(8.14)
		전체	13.23(3.66)	10.00(2.79)	5.08(2.46)	8.60(2.57)	36.91(8.23)

〈표 3〉 계속

성별	연령	부정적 정서성	사회적 기술				
			주장성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전체
			M(SD)	M(SD)	M(SD)	M(SD)	M(SD)
여아	4세	낮음	12.00(4.28)	10.63(2.45)	5.25(1.28)	8.38(2.72)	36.25(8.89)
		높음	11.77(3.83)	9.85(2.12)	4.92(2.18)	7.77(1.64)	34.31(7.49)
		전체	11.86(3.90)	10.14(2.22)	5.05(1.86)	8.00(2.07)	35.05(7.89)
	5세	낮음	16.67(3.20)	11.67(2.16)	6.67(2.66)	11.00(2.68)	46.00(7.80)
		높음	11.70(2.54)	10.60(2.76)	5.20(1.75)	7.10(1.73)	34.60(4.62)
		전체	13.56(3.67)	11.00(2.53)	5.75(2.18)	8.56(2.83)	38.88(8.10)
	전체	낮음	14.00(3.42)	11.07(2.30)	5.86(2.03)	9.50(2.93)	40.43(9.54)
		높음	11.74(3.26)	10.17(2.39)	5.04(1.97)	7.48(1.68)	34.43(6.27)
		전체	12.59(3.85)	10.51(2.36)	5.35(2.00)	8.24(2.41)	36.70(8.10)
전체	4세	낮음	13.23(3.71)	10.69(2.36)	5.19(2.23)	9.12(2.18)	38.23(8.24)
		높음	11.91(3.82)	9.28(2.30)	4.69(2.25)	7.69(2.25)	33.56(7.55)
		전체	12.50(3.80)	9.91(2.42)	4.91(2.23)	8.33(2.31)	35.66(8.14)
	5세	낮음	14.38(3.63)	11.62(2.13)	6.63(1.93)	9.44(2.66)	42.06(7.91)
		높음	13.25(3.40)	9.88(3.38)	4.75(2.32)	7.94(2.89)	35.81(6.50)
		전체	13.81(3.51)	10.75(2.92)	5.69(2.31)	8.69(2.83)	38.94(7.80)
	전체	낮음	13.67(3.68)	11.05(2.29)	5.74(2.21)	9.24(2.35)	39.69(8.24)
		높음	12.35(3.70)	9.48(2.69)	4.71(2.25)	7.77(2.45)	34.31(7.23)
		전체	12.97(3.73)	10.21(2.62)	5.19(2.28)	8.46(2.50)	36.82(8.13)

한편, 유아의 사회적 기술 중 주장성의 경우 성별, 연령, 부정적 정서성간에, 그리고 책임성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 부정적 정서성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수들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t 검증을 통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 주장성에서 만 5세 여아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만 5세 여아의 주장성 점수(M=16.67, SD=3.20)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만 5세 여아의 주장성 점수(M=11.70, SD=2.54)

〈표 4〉 성별, 연령 및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기술 삼원변량분석

구 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사회적 기술	성 별	7.264	1	7.264	.575
	연 령	69.439	1	69.439	5.498*
	부정적 정서성	20.339	1	20.339	1.610
	성별×연령	2.819	1	2.819	.223
	성별×부정적 정서성	46.357	1	46.357	3.670
	연령×부정적 정서성	1.846E-02	1	1.846E-02	.001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103.583	1	103.583	8.201**
	오 차	1035.685	82	12.630	

〈표 4〉 계속

구 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자기통제	성 별	9.659	1	9.659	1.516
	연 령	7.089	1	7.089	1.113
	부정적 정서성	51.745	1	51.745	8.122**
	성별×연령	1.557	1	1.557	.244
	성별×부정적 정서성	10.077	1	10.077	1.582
	연령×부정적 정서성	2.303	1	2.303	.361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793	1	.793	.125
	오 차	522.435	82	6.371	
협력성	성 별	3.618	1	3.618	.722
	연 령	8.019	1	8.019	1.600
	부정적 정서성	30.044	1	30.044	5.994*
	성별×연령	.734	1	.734	.149
	성별×부정적 정서성	2.482	1	2.482	.495
	연령×부정적 정서성	11.389	1	11.389	2.272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797	1	.797	.159
	오 차	410.993	82	5.012	
사회적 기술	성 별	.525	1	.525	.094
	연 령	8.727	1	8.727	1.563
	부정적 정서성	35.673	1	35.673	6.390*
	성별×연령	1.703	1	1.703	.305
	성별×부정적 정서성	14.742	1	14.742	2.641
	연령×부정적 정서성	.498	1	.498	.089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41.839	1	41.839	7.494**
	오 차	457.782	82	5.583	
진 체	성 별	2.529	1	2.529	.043
	연 령	281.615	1	281.615	4.817*
	부정적 정서성	536.259	1	536.259	9.172**
	성별×연령	25.887	1	25.887	.443
	성별×부정적 정서성	34.793	1	34.793	.595
	연령×부정적 정서성	32.877	1	32.877	.562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220.891	1	220.891	3.778
	오 차	4794.828	82	58.467	

* $p < .05$ ** $p < .01$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235, p<.05$). 반면, 만 4세 남아 및 여아, 그리고 만 5세 남아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주장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책임성에서는 만 4세 남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부정적 정

서성 수준이 낮은 만 4세 남아의 책임성 점수 ($M=9.44, SD=1.89$)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만 4세 남아의 책임성 점수($M=7.63, SD=2.63$)보다 더 높았다($t=2.420, p<.05$). 반면, 만 5세 남아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책임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만 5

<표 5> 유아의 사회적 기술(주장성, 책임성) 단순 주효과 분석

구분	성별	연령	부정적 정서성	M(SD)	t
주장성	남아	4세	낮음	13.78(3.42)	1.472
			높음	12.00(3.92)	
	5세	낮음	13.00(3.27)	-1.705	
		높음	15.83(3.19)		
	여아	4세	낮음	12.00(4.28)	.125
			높음	11.77(3.83)	
5세	낮음	16.67(3.20)	3.235*		
	높음	11.70(2.54)			
사회적 기술	남아	4세	낮음	9.44(1.89)	2.420*
			높음	7.63(2.63)	
	5세	낮음	8.50(2.27)	-.469	
		높음	9.33(3.98)		
	여아	4세	낮음	8.38(2.72)	.640
			높음	7.77(1.64)	
5세	낮음	11.00(2.68)	3.186*		
	높음	7.10(1.73)			

*p<.05

세 여아의 경우에도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만 5세 여아의 책임성 점수(M=11.00,

SD=2.68)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만 5세 여아의 책임성 점수(M=7.10, SD=1.73)보다 더 높았다($t=3.186, p<.05$). 그러나 만 4세 여아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성의 차이에 따른 책임성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3. 성별, 연령 및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유아의 행동문제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연령 및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른 유아의 행동문제 평균점수는 12.43점이었으며, 남아는 12.81점, 여아는 11.89점이었다. 성별, 연령 및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유아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시된 <표 7>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유아의 행동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행동문제의 경우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유아(M=8.90, SD=6.89)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표 6> 성별, 연령 및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유아의 행동문제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연령	부정 정서	행동문제							전체	
			내면화				외현화				
			불안	미성숙	위축	신체	전체	과잉	공격		전체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4세	낮음	2.67(2.59)	3.22(2.46)	1.39(1.33)	1.56(1.46)	8.78(6.23)	1.89(2.49)	.56(1.04)	2.50(3.22)	11.28(8.46)
		높음	3.58(2.36)	3.63(2.34)	1.68(1.77)	2.21(2.20)	11.11(7.29)	3.00(2.45)	1.74(1.82)	4.74(3.87)	15.84(9.95)
		전체	3.14(2.49)	3.43(2.38)	1.54(1.56)	1.89(1.88)	9.97(6.80)	2.46(2.50)	1.16(1.59)	3.65(3.70)	13.62(9.41)
남아	5세	낮음	1.80(1.99)	2.40(1.84)	.80(.92)	.80(1.03)	5.80(4.32)	1.50(1.27)	.70(1.25)	2.20(2.30)	8.00(5.73)
		높음	2.67(1.97)	3.67(1.63)	1.00(.63)	2.33(2.07)	9.67(3.61)	3.17(1.83)	3.00(2.53)	6.17(4.26)	15.83(7.63)
		전체	2.13(1.96)	2.88(1.82)	.87(.81)	1.38(1.63)	7.25(4.39)	2.13(1.67)	1.56(2.10)	3.69(3.63)	10.94(7.38)
전체		낮음	2.36(2.39)	2.93(2.26)	1.18(1.22)	1.29(1.36)	7.71(5.72)	1.75(2.12)	.61(1.10)	2.39(2.88)	10.11(7.66)
		높음	3.36(2.27)	3.64(2.16)	1.52(1.58)	2.24(2.13)	10.76(6.56)	3.04(2.28)	2.04(2.03)	5.08(3.93)	15.84(9.29)
		전체	2.83(2.37)	3.26(2.22)	1.34(1.40)	1.74(1.81)	9.15(6.26)	2.36(2.27)	1.28(1.75)	3.66(3.64)	12.81(8.87)

<표 6> 계속

성별	연령	부정 정서	행동문제							전체
			내면화				외현화			
			불안	미성숙	위축	신체	전체	과잉	공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4세	낮음	1.63(1.06)	1.50(.20)	.88(.99)	.50(.76)	4.50(2.78)	.88(.83)	.25(.71)	1.13(1.13)	5.63(3.58)
		3.23(3.09)	3.69(1.89)	1.54(1.51)	1.38(1.56)	9.85(6.27)	2.92(1.98)	1.08(.95)	4.00(2.71)	13.85(7.94)
		2.62(2.60)	2.86(1.96)	1.29(1.35)	1.05(1.36)	7.81(5.78)	2.14(1.90)	.76(.94)	2.90(2.62)	10.71(7.68)
여아	5세	1.83(1.72)	2.17(1.47)	.50(.55)	1.83(1.83)	6.33(4.80)	1.17(1.47)	.17(.41)	1.33(1.51)	7.67(5.20)
		5.00(2.16)	3.90(1.37)	1.60(1.35)	2.20(1.75)	12.70(3.83)	3.40(1.96)	.80(.92)	4.20(2.53)	16.90(5.36)
		3.81(2.51)	3.25(1.61)	1.19(1.22)	2.06(1.73)	10.31(5.16)	2.56(2.06)	.56(.81)	3.13(2.58)	13.44(6.90)
전체	1.71(1.33)	1.79(1.31)	.71(.83)	1.07(1.44)	5.29(3.73)	1.00(1.11)	.21(.58)	1.21(1.25)	6.50(4.29)	
	4.00(2.81)	3.78(1.65)	1.57(1.41)	1.74(1.66)	11.09(5.43)	3.13(1.94)	.96(.93)	4.09(2.57)	15.17(6.97)	
	3.14(2.59)	3.03(1.80)	1.24(1.28)	1.49(1.59)	8.89(5.59)	2.32(1.96)	.68(.88)	3.00(2.57)	11.89(7.38)	
4세	2.35(2.26)	2.69(2.28)	2.23(1.24)	1.23(1.37)	7.46(5.71)	1.58(2.16)	.46(.95)	2.08(2.80)	9.54(7.71)	
	3.44(2.64)	3.06(2.13)	1.62(1.64)	1.87(1.98)	10.59(6.82)	2.97(2.24)	1.47(1.54)	4.44(3.42)	15.03(9.10)	
	2.95(2.52)	3.22(2.23)	1.45(1.48)	1.59(1.75)	9.19(6.48)	2.34(2.29)	1.02(1.40)	3.38(3.34)	12.57(8.87)	
전체	1.81(1.83)	2.31(1.06)	.69(.79)	1.19(1.42)	6.00(4.35)	1.38(1.31)	.50(1.03)	1.88(2.03)	7.88(5.37)	
	4.13(2.33)	3.81(1.42)	1.38(1.15)	2.25(1.81)	11.56(3.93)	3.31(1.85)	1.63(1.96)	4.94(3.30)	16.50(6.08)	
	2.97(2.38)	3.06(1.70)	1.03(1.03)	1.72(1.69)	8.78(4.96)	2.34(1.86)	1.06(1.64)	3.41(3.11)	12.19(7.14)	
전체	2.14(2.10)	2.55(2.05)	1.02(1.12)	1.21(1.37)	6.90(5.23)	1.50(1.86)	.48(1.97)	2.00(2.51)	8.90(6.89)	
	3.67(2.54)	3.71(1.91)	1.54(1.49)	2.00(1.91)	10.92(5.99)	3.08(2.10)	1.52(1.68)	4.60(3.35)	15.52(8.18)	
	2.96(2.45)	3.17(2.05)	1.30(1.34)	1.63(1.72)	9.04(5.96)	2.34(2.14)	1.03(1.48)	3.36(3.25)	12.43(8.26)	

<표 7> 성별, 연령 및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유아의 행동문제 삼원변량분석

구 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불안	성 별	1.131	1	1.131	.207
	연 령	4.677E-02	1	4.677E-02	.009
	부정적 정서성	50.887	1	50.887	9.302**
	성별×연령	16.731	1	16.731	3.058
	성별×부정적 정서성	10.624	1	10.624	1.942
	연령×부정적 정서성	2.722	1	2.722	.498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3.060	1	3.060	.559
내면화	오 차	448.581	82	5.470	
	성 별	3.273	1	3.273	.824
	연 령	9.020E-03	1	9.020E-03	.002
	부정적 정서성	37.203	1	37.203	9.364**
	성별×연령	3.273	1	3.273	.824
	성별×부정적 정서성	6.000	1	6.000	1.510
	연령×부정적 정서성	.188	1	.188	.047
미성숙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2.054	1	2.054	.517
	오 차	325.768	82	3.973	

<표 7> 계속

구 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위축	성 별	.153	1	.153	.085
	연 령	2.984	1	2.984	1.654
	부정적 정서성	6.049	1	6.049	3.352
	성별×연령	1.092	1	1.092	.605
	성별×부정적 정서성	1.907	1	1.907	1.056
	연령×부정적 정서성	.138	1	.138	.076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335	1	.335	.186
	오 차	147.989	82	1.805	
내면화	성 별	1.142	1	1.142	.404
	연 령	2.725	1	2.725	.963
	부정적 정서성	14.027	1	14.027	4.957*
	성별×연령	9.173	1	9.173	3.241
	성별×부정적 정서성	1.041	1	1.041	.368
	연령×부정적 정서성	.154	1	.154	.054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2.312	1	2.312	.817
	오 차	232.046	82	2.830	
전체	성 별	4.602	1	4.602	.144
	연 령	8.695E-02	1	8.695E-02	.003
	부정적 정서성	380.179	1	380.179	11.885**
	성별×연령	98.258	1	98.258	3.072
	성별×부정적 정서성	36.109	1	36.109	1.129
	연령×부정적 정서성	7.768	1	7.768	.243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319	1	.319	.010
	오 차	2622.960	82	31.987	
과잉	성 별	1.681	1	1.681	.403
	연 령	.354	1	.354	.085
	부정적 정서성	59.082	1	59.082	14.160***
	성별×연령	1.164	1	1.164	.279
	성별×부정적 정서성	2.681	1	2.681	.642
	연령×부정적 정서성	.651	1	.651	.156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163	1	.163	.039
	오 차	342.143	82	4.172	
외면화	성 별	16.221	1	16.221	9.043
	연 령	1.301	1	1.301	.725
	부정적 정서성	28.951	1	28.951	16.140***
	성별×연령	3.705	1	3.705	2.066
	성별×부정적 정서성	4.843	1	4.843	2.700
	연령×부정적 정서성	1.015	1	1.015	.566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2.042	1	2.042	1.138
	오 차	147.085	82	1.794	

〈표 7〉 계속

구 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외현화 전체	성 별	28.994	1	28.994	3.168
	연 령	2.805	1	2.805	.307
	부정적 정서성	169.172	1	169.172	18.486***
	성별×연령	.617	1	.617	.067
	성별×부정적 정서성	.253	1	.253	.028
	연령×부정적 정서성	3.514	1	3.514	.384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3.582	1	3.582	.391
	오 차	750.426	82	9.152	
전체	성 별	56.699	1	56.699	.964
	연 령	3.880	1	3.880	.066
	부정적 정서성	1056.562	1	1056.562	17.957***
	성별×연령	83.300	1	83.300	1.416
	성별×부정적 정서성	30.318	1	30.318	.515
	연령×부정적 정서성	21.731	1	21.731	.369
	성별×연령×부정적 정서성	6.039	1	6.039	.103
	오 차	4824.771	82	58.839	

* $p<.05$ ** $p<.01$ *** $p<.001$

유아($M=15.52$, $SD=8.18$)에 비해 행동문제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7.957$, $p<.001$).

다음으로, 내면화 행동문제의 경우 전체 내면화 행동문제, 불안, 미성숙, 신체증상 점수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유아($M=6.90$, $SD=5.23$; $M=2.14$, $SD=2.10$; $M=2.55$, $SD=2.05$; $M=1.21$, $SD=1.37$)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M=10.92$, $SD=5.99$; $M=3.67$, $SD=2.54$; $M=3.71$, $SD=1.91$; $M=2.00$, $SD=1.91$)에 비해 전체 내면화 행동문제, 불안, 미성숙, 신체증상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1.885$, $p<.01$; $F=9.302$, $p<.01$; $F=9.364$, $p<.01$; $F=4.957$, $p<.001$). 그러나, 미성숙 점수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에도 전체 외현화 행동문제, 과잉행동, 공격성 점수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

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유아($M=2.00$, $SD=2.51$; $M=1.50$, $SD=1.86$; $M=.48$, $SD=1.97$)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M=4.60$, $SD=3.35$; $M=3.08$, $SD=2.10$; $M=1.52$, $SD=1.68$)에 비해 전체 외현화 행동문제, 과잉행동, 공격성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8.486$, $p<.001$; $F=14.160$, $p<.001$; $F=16.140$, $p<.001$).

반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아의 행동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만 4세 및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이들의 부정적 정서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행동문제가 성별, 연령, 부정적 정

서성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만 4세 및 5세 유아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슬픔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성 중 슬픔에서 성차가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성미영, 2006)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슬픔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의 사회화 과정에서의 차이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남아의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지 않도록 양육되었기 때문에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정서성에서 미취학 유아의 두려움 수준이 초등학교 아동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연구의 대상인 만 4세와 5세의 미취학 유아간에는 부정적 정서성에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부정적 정서성의 연령별 변화는 존재하지만, 연령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서성의 연령차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또래와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술은 만 4세 유아보다 만 5세 유아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연령차는 만 7세 아동의 사회적 기술 수준이 만 5세 아동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권세은·이순형, 2002). 반면, 연령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영옥·윤경선, 2000)도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사회적 기술의 연령차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

구에서는 만 4세 유아와 5세 유아간에 연령차는 타났으나,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의 경우 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에서는 성차가 존재한다는 결과(심희옥, 1998)와, 미취학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서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김영옥·윤경선, 2000)가 제시되어서 사회적 기술에서의 성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 중 자신의 의사를 정당하게 제시하는 주장성의 경우에는 연령차에서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성별, 연령, 부정적 정서성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만 5세 여아의 주장성 정도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만 5세 여아의 주장성 정도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성별, 연령과 같은 단일 변인에 의한 차이보다는 이러한 변인과 부정적 정서성 수준간의 상호관련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즉, 만 4세 남아, 만 5세 남아 및 여아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성 수준의 차이가 유아의 주장성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만 5세 여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의 차이가 주장성 수준의 차이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셋째, 유아가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는 사회적 기술의 적용은 유아 자신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에 비해 사회적 기술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망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을 통제하는 사회적 기술의 수준이 높다는 관련성을 규명한 선행연구의 결과(권세은·이순형,

2000)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망 능력과 사회적 기술과의 관련성을 통해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 여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의 사용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작용하는 유아의 정서지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서, 유아의 정서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강제적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친사회적 전략의 사용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강이·성미영, 2003), 이러한 선행연구 역시 정서 관련 변인과 사회적 기술 사용간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유아의 정서성과 사회적 기술의 관련성을 뒷받침해준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 중 책임감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 부정적 정서성 수준간에 상호관련성이 나타나서 만 4세 남아와 만 5세 여아의 경우에만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책임감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만 4세 남아의 책임감이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만 4세 남아의 책임감 보다 더 높았으며,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만 5세 여아의 책임감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만 5세 여아의 책임감 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 의식과 같은 사회적 기술의 경우 만 4세 남아와 만 5세 여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보다 확실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잉행동을 보이거나 위축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의 행동문제 역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에 비해 행동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성미영,

2006; Ackerman et al., 1999; Eisenberg et al., 2001; Fabes et al., 1999; Rothbart et al., 1994)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점수도 높았고(성미영, 2006),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공격성이나 죄의식 등과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Rothbart et al., 1994)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 흐름을 보였다. 이처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 경우 불안이나 위축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더불어 공격성이나 과잉행동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발생이 더 빈번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또래관계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에게 보다 긍정적인 정서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관한 국내 연구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기술과 행동문제의 차이 여부를 살펴보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지, 아니면 높은지에 따라 사회적 기술의 사용이나 행동문제의 발생 빈도에 차이를 보여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의 경우 사회적 기술의 수준은 낮고 행동문제는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중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성이 사회적 기술이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부정적 정서성 수준을 상대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체계적인 중재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중재과정의 구축에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사회적 기술이나 행동문제에

대한 증재적 접근보다는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증재적 접근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연구대상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점, 그리고 연령차를 비교하기에는 그 간격이 협소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권세은 · 이순형(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3(2), 107-120.

권연희 · 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김영옥 · 윤경선(2000). 친사회적 토의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307-324.

박성연(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36(4), 19-33.

박성은 · 박성연(2001).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남아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29-47.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성미영(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면화 행동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7-29.

심희옥(1998). 아동 후기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이강이 · 성미영(2003). 유아의 정서지식과 대인간 문

제해결 전략-시설보호 유아와일반 유아의 비교-. **아동학회지**, 24(1), 33-45.

한미현 ·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Ackerman, B. P., Izard, C. E., Schoff, K., Youngstrom, E. A., & Kogos, J.(1999). Contextual risk, caregiver emotionality, and the problem behaviors of six- and seven-year-old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6), 1415-1427.

Arsenio, W. F., Cooperman, S., & Lover, A.(2000). Affective predictors of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 Direct and indirect effect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38-448.

Brown, J. R., & Dunn, J.(1996). Continuities in emotion understanding from three to six years. *Child Development*, 67, 789-802.

Denham, S. A.(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7-201.

Denham, S. A., McKinley, M., Couchoud, E. A., & Holt, R.(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eer status in young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61, 1145-1152.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 Guthrie, I., Poulin, R., Shepard, S., & Friedman, J. (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2-442.
- Gresham, F. M., & Elliot, S. N.(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 American Guidance Service.
- Murphy, B. C., & Eigenberg, N.(1997).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and their responses when they are targets of a peer's anger. *Social Development, 6*(1), 18-36.
- Park, S., Belsky, J., Putnam, & S., Cmic, K.(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18-227.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2006년 2월 28일 투고 : 2006년 5월 11일 채택